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자치행정위 의안심사 위한 견학활동

부안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원진)는 지난달 29일 인접해 있는 정읍과 태안에 위치한 동화농민혁명기념관 방문을 통한 견학 활동을 펼쳤다.

이번 견학은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의 원활한 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김원진 위원장을 비롯한 박병래 의원, 김두레 의원, 전문위원 및 집행부 직원 등 9명이 함께 했다.

이날 일정은 정읍 동화농민혁명기념관 시작으로 태안 동화농민혁명기념관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김원진 위원장 등은 각 지자체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부터 예산 및 인력현황 등을 보고 받은 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하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원진 위원장을 비롯한 함께한 의원들은 "이번 방문에서 검토한 부분을 앞으로 예정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전 심사에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시간을 갖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15% 지원

정읍시가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12월 1일부터 8일까지 '202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3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2023년 10월~11월까지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와 수출 업체로, 구비서류를 갖춰 농수산유통과 유통지원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정부 고시 품목별 표준 물류비의 15% 이내(농가 9%, 업체 6%)로 기본물류비에 적용한다. 이학수 시장은 "전략적인 마케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정읍농산물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럽피스킨 안정세

방역대 예찰지역 소 농장 반출입 제한 조건부 해제

전북에서 확산세를 넓혀가던 럽피스킨이 안정세에 돌입하면서 소 농장 반출입 제한이 지난달 27일부터 조건부로 해제됐다.

정읍시는 방역대 예찰지역 농장 소 중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전국 일부 도축장으로 출하가 가능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12월 1일부터는 부안군 방역대 예찰지역 농가 479농가 또한 임상검사와

향원검사 후 방역대가 해제될 예정으로, 그동안 출하 지연으로 인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럽피스킨은 10월 25일 부안군 백산면 한우농가를 시작으로 전북에서 빠르게 확산해나갔다.

30일 기준 도내에서는 총 14건(고창 12건, 부안 1건, 임실 1건)이 발생해



정읍시에서는 럽피스킨 초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700여 축산농가와 합심해 초동 차단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발생 농가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했다. 특히 정읍은 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소 사육 규모를 가지고 있어 긴장감이 더욱 컸다.

이에 시에서는 럽피스킨 초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700여 축산농가와 합심해 초동 차단방역조치에 총력을 다했다. 또한,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백산집종을 신속하게 완료해 백산 소들은 현재 집단면역에 들어간 상태.

이러한 노력으로 30일까지 정읍에는 단 한 건의 감염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시는 럽피스킨 사태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방역 태세를 갖추는 등 방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럽피스킨에 감염된 소고기가 유통돼 섭취하면 사람도 감염되지 않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된 소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 살처분되고 있으며, 도축장에서 추가 검사를 통해 걸러지고 있어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는다.

이학수 시장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로 럽피스킨이 정읍에는 달지 못했다"며 "축산 농가가 전염병에 안심하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2024년 취약계층 420명 일자리 제공

12월 4일부터 8일까지 1단계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정읍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확대 제공한다. 시는 2024년도 정읍형 상생일자리사업에 20억 8000만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4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정읍형 상생일자리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공일 자리를 발굴

해 취업 취약 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24년도는 총 3단계로 나눠 단계별 140명씩 총 4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2024년 1단계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1단계는 내년 1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선발될 경우 60세 이하는 주 30시간, 61세 이상은 주 15시간 근무하게 된다. 시급은 9860원이며, 하루 5000원의 부대 경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나이에 따라 4대 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모집 대상자는 사업개시일 기준(내년 1월 8일) 18세 이상 69세 이하 시민으로 가구소득과 부양가족 수, 참여 횟수,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고인돌박물관, '고인돌 미디어 정원' 개관

고창군이 지난달 30일 국내 유일의 고인돌 전문 박물관인 고창고인돌박물관 1층에 '고인돌 미디어 정원'을 정식 개관했다.

2023년 미디어아트 상설체험관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하여 완성된 고인돌미디어 정원은 고인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실감형 미디어아트의 기술을 접목

한 영상으로 환호한 불거리와 함께 편안함을 제공한다.

또한 가로 25m, 세로 5.4m의 대형 스크린은 320x160mm의 LED모듈 2,000개 이상을 조합한 초고화질 LED 커브드 화면으로 색채의 선명도와 몰입감을 확보하여 완성된 고인돌미디어 정원은 주요 콘텐츠는 △고인돌과 피어나는 형형색색의 꽃, 동물, 고창의 자연소리



로 평온과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고인돌 정원' △2022년 고창고인돌유적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실감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제27차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정기회의 및 실무자 워크숍'을 상하농원에서 열었다.

고창군, 세계유산도시협 정기회의

올해 등재된 '가야고분군' 등재도시 정식가입 승인

'국내최초'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 7개를 보유한 고창군이 국내 25개 세계유산도시들과 적극적인 협력에 나섰다.

특히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 등 고창군만의 유산 활용법을 소개하며 눈길을 끌었다.

고창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제27차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정기회의 및 실무자 워크숍'을 상하농원에서 열었다.

협의회장인 김윤철 함천군수와 부회장 심덕섭 고창군수, 구복규 화순군수를 비롯한 회원도시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세계유산을 보유한 25개 시군구 단체장 협의회로 세계유산도시 간 상호 우호증진과 협력을 목적으로 2010년에 창립된 대

한민국의 대표적인 행정협의회다.

고창군은 13대(2022~2023년) 부회장 도시로서 제6회(2012년6월)와 제15회(2015년12월) 정기회의 개최에 이어 3번째로 제27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유네스코 보물 7개를 품은 고창군 홍보영상으로 진행된 정기회의에서는 올해 등재된 '가야고분군' 등재도시의 정식가입이 승인됐다. 내년 협의회 개최의 흥부와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대한민국 세계유산도시가 고창에 모여 정기회의와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어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 세계유산도시들이 연계해 관광활성화 등 현안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공모 선정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5,8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소와 과일, 육류 등 국내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지자체 4곳으로 시작해, 올해는 전국 2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특히 부안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푸드플랜과 연계한, 건강한 먹거리 순환체계를 공고히 하고,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과 함께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내 인구의 소

득격자에 따른 식품 불안정성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부안군에서는 약 3,3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며, 바우처 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원, 2인 가구 월 5만7천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또한 거동불편자에 한해 농산물 꾸러미 배송 서비스도 병행해 추진될 예정이다.

2024년도 2월(예정)에 신청받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사용하는 바우처 카드는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 하나마트 등에서 이용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